그래, 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㊸ 창작극 〈만신: 페이퍼 샤먼〉



국립창극단의 창작극 〈만신:페이퍼 샤먼〉의 한 장면.

불전 사물이 소리로 중생제도 발원 전하듯
四대륙 샤먼들 '굿'을 통해 희망을 노래해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더불어 울리는 불전의 사물 소리는 삼라만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물들을 울리는 까닭은 말과 글로 소통하는 사람만이 아닌 삼라만상 저마다에게 지극한 정성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다. 땅에 깃든 중생 가죽으로 만든 법고의 소리가, 물을 터로 사는 중생에게는 물고기 모양의 목어가, 하늘을 나는 중생에게는 구름 모양의 운판이, 이미 죽어 지옥불에서 고통 받는 중생에게는 용광로를 거쳐 두드려 만든 쇠로 만든 범종이 아침저녁으로 '소리'를 울려 제도의 발원을 전한다. 그렇다. 소리는 힘이 있다.

국립창극단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무대에 올린 창작극 〈만신: 페이퍼 샤먼〉은 불전사물의 뜻을 담은 지극한 기원과도 같았다.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란 국악 전공자로서 공동 극작, 음악감독까지 맡은 박칼린 연출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평창 월정사에서 열인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서 〈리파카 무량〉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공연했던 이력을 생각하면 〈만신: 페이퍼 샤먼〉이 무속의 얼개에 불교의 뜻을 담는 형식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

"치유사, 힐러, 무당, 마녀, 마법사, 수호자, 위치 닥터, 드루이드, 투앗드다나안, 만신, 샤먼…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예민한 자들이여"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다른 대륙에서 온 영험한 자들이 모여 아시아 동북쪽 한국을 찾은 까닭은 어떤 치성이 닿았기 때문이다.

시공간을 넘어 다른 대륙의 예민한 자들에게까지 닿은 치성은 아주 평범한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 하나 점지해 주소서"라는 소박한 기원. 등장하면서부터 기후위기며 가자지구의 폭격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소리로 관객의 기대치를 높인 예민한 자들 앞에서 삼신굿을 올리고 아이를 바라는 첫 시작은 아주 소박하다. 삼신굿에 답해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는 팔자가 평범하지 않으니 감추어 키워야 한다는 무당의 예언도 글로벌 재난과 위기에 비하면 별 것 아닌 듯하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계곡처럼 많은 것을 품으라는 이름 '실'을 받고 담장 안에 꽁꽁 숨겨져 자란다.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오직 '소리' 뿐이다. 담장 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사정들. 그 사람들의 푸념이나 궁금한 것들도 별 것 아니다. 좋아하는 이웃 오빠, 가족의 건강 따위 사소한 일상들. 고만고만한 일들에 대해 덕담처럼 건네지는 실의 목소리가 용하다며 밖으로 이끌려 나가기까지는 다른 대륙의 예민한 자들이 쏟아낸 재난과 위기에 비해 한국적 무속의 스케일은 참 소박하다 싶다. 용하다고 반기던 이웃들이 길한 일 뿐 아니라 흉사도 가리지 않고 전하는 실에게 보내는 적대 앞에서 실의 가야할 길이 험한 들 얼마나 험하랴 싶을 정도로 어린 실이 강신무가 되기 전까지는 고민도 갈등도 소박하다.

자신이 남과 다르게 앞날을 알고, 죽은 존재들을 보고, 사람 아닌 뭇 생명들과 통하는 것을 알게 된 실이 내림굿을 받고 강신무가 되는 과정은 창과 소리, 춤과 놀이를 아우르는 한국 전통예술의 바탕에 무속이 있고, 그 바탕을 제대로 익힌 연희자들의 소리와 사위에 실리니 멋과 흥을 한껏 돋운다.

그래도 갓 신 내림받은 어린 무당이 4대륙 샤먼들을 두루 불러들여놓고 앞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 걸까 싶다. 오랜 세월 길흉 점치고, 아이 점지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토속 신앙으로서의 무속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으려나 싶을 때 친어머니와 신어머니가 실을 떠나보낸다. 큰 신이 내린 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의 길을 찾으라면서.

실의 길에 함께 하는 이들이 바로 처음부터 지켜본 다른 대륙에서 온 예민한 자들이다. 영화 〈서편제〉에서 이미 대중적인 소릿길을 펼쳐보인 안숙선은 소리꾼으로는 드물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완창한 대명창으로서 지금까지 국립창극단 무대의 작창을 맡아왔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창극단 소속으로 스타가 된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이 작창을 함께 했다. 이 둘이 어찌 다른 대륙의 샤먼을 그려낼까, 한국적 소리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의 무속을 표현할 수는 있을까 싶었는데, 새로운 창극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일 듯하다.

무릇 무당이란 다른 존재를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아주 특별하고 '예민한 자'들이라는 처음의 정체성 선언은 창극단 연희자들의 신들린 무대에서 관객을 휘몰아친다. 백인 노예무역상에게 잡혀가다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된 아프리카의 희생자들,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몰리고, 뺏기고,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과 버팔로들, 비무장지대 DMZ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습도 못되고 낡은 군화로 굴러다니는 넋들, 제국주의 백인들 발길이 닿은 후로 무성하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멸종되는 짐승들과 부족들….

다른 역사 다른 대륙의 샤먼들을 통해 그 처절한 한이 무대에 넘치고 넘쳐 관객에게로 흘러들 때, 그저 자기가 왜 남들과 달라서 숨어 살아야하냐고 투정부리던 실이 그 한에 아파하고 절절한 씻김굿을 펼칠 때, 우리는 모두 하나요, 이 세상 어느 고통 어느 희생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지구적 차원의 전쟁과 재앙이 켜켜이 쌓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다.

한국의 소리는 '한'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무속은 무당의 목소리와 몸짓을 빌어 '한을 풀어주는 굿'으로 펼쳐진다. 어떤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 바리데기가 길을 떠나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었듯 실이 전세계의 과거와 현재의 한 서린 기운을 따라가는 씻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실 혼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까지.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이번 무대를 이끈 유은선 감독은 한국 전통 무속에서 종이로 꽃을 만들던 전통,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를 하던 놀이 문화와 임상현장에서 실제 치료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사례 등을 생각하며 무대 위의 모든 것을 종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세트와 소품, 의상의 일부를 종이로 만들면서 '페이퍼 샤먼'을 기획했다고 설명한다.

박칼린 감독은 그동안 미신이라고 억압하고 천대하던 샤먼에 '땅과 물, 바다와 바람에 깃든 슬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풀어주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들은 한국 전통 삼신굿, 용왕굿, 내림굿, 씻김굿을 통해 희망을 말한다.

박칼린 감독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지하 대피소에서 한 소녀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전해져 세상을 울리는 모습에서 "이 나라와 사람들은 여전히 꿋꿋하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래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그렇구나. 노래는, 소리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절에서 예불을 소리 내서 하는구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삼라만상에게도 소리는 희망을 전하는 힘이 있겠구나. 법고식이 내 마음을 울리는 까닭이 사물을 울리는 스님들의 정성된 움직임과 정교한 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 희망과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준 창극 〈만신: 페이퍼 샤먼〉, 뮤지컬 〈리파카 무량〉과 같은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㉗

1. 불교에서 수행하고 포교하는데 필요한 유형무형의 일을 행하는 것을 불사(佛事)라고 한다. 다음 중 불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탑을 세우는 일
②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③ 관상(觀相)을 봐주는 일
④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일
⑤ 사경(寫經)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해설 : 탑을 세우거나 사경을 통해 어렵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일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스스로 수행이 되고 남에게 포교를 하는 일이다. 관상은 익숙하게 알려진 말로는 얼굴의 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 수행자가 부처님이나 성자(중)의 호상(好相)을 뵙는 일을 관상(觀相(想))이라고도 하나 이는 '봐준다'라는 어구와 호응되지 않는다.

2. 욕심(慾心)과 발원(發願)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욕심은 미래에 중점을 두지만, 발원은 현재에 중점을 둔다.
② 욕심은 과정 자체를 중시하지만, 발원은 결과를 중시 여긴다.
③ 욕심은 대립과 분열을 낳지만, 발원은 진정한 행복을 낳는다.
④ 욕심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원은 이타적이다.
⑤ 욕심은 의도된 의지인데 비해서 발원은 순수의지를 지향한다.

해설 : 욕심은 나에 대한 집착에 의거한 이기적인 욕망의 실현을 촉구하는 마음이고 발원은 나를 내려놓은 공심(公心)에 의거한 이타적 배려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욕심과 발원은 비슷하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다름으로 욕심은 오지 않은 미래에 중점을 두며, 결과 그 자체에 매달리고, 대립과 분열을 낳으며, 개인적, 이기적이고, 자신의 의도를 계속 반영한다. 발원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3. 불자의 신행 생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불자들의 신행 생활은 절에 갔을 때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는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등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② 불교는'수행의 종교', ' 깨달음의 종교'이기에 믿음을 통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은 불교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미신적 행동이다.
③ 불교의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것이므로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불교의 참회는 과거의 죄를 뉘우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인데, 죄의 본성이 본래 없고 고정 불변하는 실체도 아니라고 본다.
⑤ 불교의 수행방법으로는 조사선, 간화선, 묵조선, 염불선 등이 있으며, 위빠사나 수행법은 소승불교의 수행법이므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해설 : 불교의 신행과 수행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기에 신앙을 통해 수행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으며, 수행을 통해 더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業)과 연기를 믿어 과거에서 비롯한 죄를 참회하며, 수행을 통해 죄의 본성이 공함을 정견(正見)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4. 불교의 오계는 불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음 중 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②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③ 예의와 순결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라.
④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라.
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으로 보호하라.

해설 : 오계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예의와 순결을 지키는 불사음(不邪婬),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는 불투도(不偷盜),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불망어(不妄語), 술 등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않는 불음주(不飮酒)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기독교 등 이웃종교의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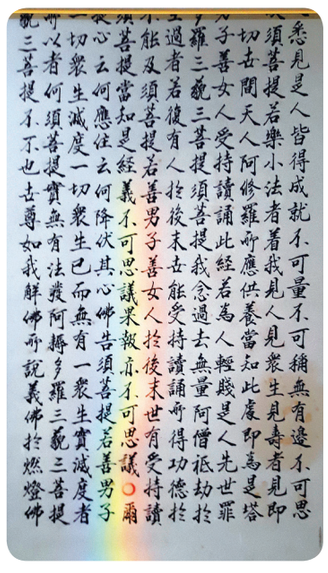
5. 불교에서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인 사무량심(四無量心)을 키울 것을 제시한다. 다음 중 사무량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慈) ② 비(悲) ③ 덕(德) ④ 사(捨) ⑤ 희(喜)

해설 : 사무량심은 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는 자애로운 마음, 비는 안타까워 하는 마음, 희는 기뻐하는 마음, 사는 이러한 마음들의 평등함, 혹은 내려놓음을 말한다.

정답 : ①, ③, ②, ⑤, ③, ④, ④, ①, ⑤,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 여주환 |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 산수유환 |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경혈자극요법 287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